

# 은행장 선임 갈등 'DGB'... 지주사 주주권 행사에 촉각

은행에 오늘까지 의사결정 요구  
자회사인 은행 규정 개정 검토

DGB금융지주이사회와대구은행 이사회 간 지배구조 규정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오는 19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DGB금융지주가 지난 주 이사회를 열고 대구은행 이사회에 19일까지 지배구조 규정개정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에 주주권 행사 진행을 불사할 방침이다. 은행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지배구조 규정 개정과 관련한 결정을 내놓지 않을 경우 DGB금융지주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 지분을 100% 보유하고

표류중인 대구은행장 선임과정

시기	사건
3월 29일	박인규 전 DGB금융그룹 회장 및 대구은행장 사퇴
4월 2일	박명흠 대구은행장 대행체제 시작
5월 18일	차기 대구 은행장에 김경룡 전 DGB금융지주 부사장 내정
6월 3일	김경룡 내정자 선임 연기
7월 2일	김경룡 내정자 자진 사퇴
9월 14일	DGB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지주가 은행장 후보추천) 발표
9월 18일	김진탁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도입 반대
10월 19일	DGB금융지주 이사회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의결
11월 8일	대구은행 이사회 절충안 역제안(은행 경영 독립성 CEO선임 공정성 이유)
11월 12일	DGB금융지주 이사회 대구은행 지배구조 개정시한 연장(19일)

있어 주총을 개최해 지배구조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아직까진 단순한 검토차원에 불과하다"면서도 "19일까지 전향적인 결정을 내놓지 않으면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DGB금융지주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대구은행 이사회에 19일까지 지배구조 규정개정과 관련한 최종 의사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원래는 15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지배구조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었지만 대구은행 이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할 기간을 더 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구은행 이사회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대구은행 이사회는 금융지주가 제시한 지배구조 개정안에 대해 ▲은행장 선임을 위한



대구광역시 DGB대구은행 본점

세부적 기준 확정 ▲은행 자율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자회사 CEO(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위원회에 금융지주 측과 동수로 은행이사진 참여 등을 요청했다. 금융지주가 제시한 지배구조 개정안이 은행 운영의 독립성과 CEO(대표이사) 선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DGB금융지주는 "은행 이사회 요구는 그간 대구은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

사회의 자기권력화와 집단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개정취지에 벗어난 행위"라며 "사외이사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인 중심으로 인선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여기에 은행 사회이사 포함되면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이사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지배구조 개편의 의미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DGB금융지주는 주주권 행사에 앞서 대구은행 이사와 만나 의견차이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합의가 아닌 힘으로 밀어붙이는 구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데다 대구은행 고위 임원과 노조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DGB금융 관계자는 "계속되는 내부혼란으로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면서도 "우선 대구은행 이사회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입장이라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www.pdna.co.kr

사랑한다면  
동안을 선물하세요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촉촉한 동안피부, 비밀은 DNA  
피디엔에이 크림 & 세럼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뺨이 붉어질 듯 건조한 피부는 잔주름의 원인. 바다 송어의 물찬 보습,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듐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수분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 없었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났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 7가지 피부보호 성분 함유(크림) :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병풀추출물, 여성초추출물, 치아씨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올리브오일 외



주름개선기능성 유수분밸런스개선 피부탄력개선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 16일 경북 구미지역을 방문해 농협금융 직원들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국 누빈 김광수 회장의 '소통 경영' (NH농협금융지주)

“고객 신뢰 최우선” 강조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이 영업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 농협금융은 지난 16일 김 회장이 경북 지역 영업점 현장경영을 다녀왔다고 18일 밝혔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계열사의 사업을 연계해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를 확대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생한 현장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이번 경북지역 방문을 끝으로 2018년 현장경영 일정을 마쳤다.

지난 6월 통합 IT센터를 시작으로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의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해 왔다. 특히 직원과의 간담회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전 계열사의 직원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 회장은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직원

들과 함께 개선할 점을 논의했고, 특히 고객을 위한 제안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즉시 조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 농협은행 여주시지부의 한 직원이 제안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창구의 높이를 낮추어 보자”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르신 맞춤 금융상담창구’를 개설한 바 있다.

어르신과의 거리감이 있는 기존 창구를 철거하고, 점점에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새로 설치해 어르신과 같은 높이의 책상, 더욱 가까워진 거리에서 응대함으로써 의사소통도 원활해지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김 회장은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고객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업점 직원들은 모두 고객과의 접점에 있으며, 농협금융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역설하며,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은행 모바일앱 ‘쏠’서 신용카드 간편신청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쏠(SOL)에서 편리하게 신한카드사의 인기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 풀(Full) 신청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도 ‘간편신청’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의 비대면 신청은 가능했지만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상담사와의 통화를 거쳐야 하고 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소득 등 증빙서류 제출

등이 필요했다.

이번에 도입된 신용카드 풀 신청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예·적금과 같은 일반 은행 상품을 가입하듯 쏠의 상품물을 통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거래 실적,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용카드 발급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안상미 기자